

“자주적 평화통일 이뤄다오”

겨레 사랑의 화신 백범 김구와의 대화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최근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야. 남북동포가 마음의 장벽을 헐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거야.”

백범 김구.

김삼웅 — 백범(白凡) 선생님. 그동안 저승에서 편안하시며 영원한 안락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생시처럼 나라 걱정으로 영면하시지 못하십니까? 간단히 저를 소개드리면 청년시절부터 선생님의 항일정신과 나라사랑의 마음 그리고 통일조국을 이룩하고자 하신 높은 뜻을 따르고자 하는 포의(布衣) 서생(書生)입니다.

1949년 6월 26일 비명에 가신 지 43주기를 맞아 《패배한 암살》(1992)이란 암살 배후를 밝히려는 책을 쓴 인연이 있습니다. 그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성백인회관에서 출판기념회 및 암살배후규명 강연회를 열었지요, 연사로 지금 대통령인 김대중씨, 안기부장인 이종찬씨, 광복회장을 지낸 이강훈씨,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장이던 송건호씨를 모셨습니다. 그날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생존 애국지사 뜻있는 민주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지요.

김구 — 그래 그때는 참 고맙네. 그렇지만 헛수고를 한 거야. 진상이 어찌 밝혀지겠는가.

빨갱이몰이 그치지 않는 한국사회

김삼웅 — 저는 헛수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14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등 상황변화가 따랐고 새 정부 등장과 함께 진상규명, 기념관 건립문제 등이 제기됐거든요.

김구 — 그랬었군.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기서(朴琦緒)군의 행동이 있었구먼.

김삼웅 — 아니, 선생님 알고 계셨군요. 박기서씨의 ‘정의봉’에 안두희가 맞아죽은 의거를?

김구 — 어찌 그걸 모르겠나. 안두희가 이곳에 온 걸 보았는데.

김삼웅 — 혹시 안두희를 만났습니까?

김구 — 불행한 사람이지. 가장 저급의 인간은 범죄 하수인이야. 안됐더군. 영육에 눈이 어두워 일생을 그렇게 마치다니……. 당시 여론은 어땠는가?

김삼웅 — 말도 마십시오. 박기서씨가 살인자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암살배후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백범 암살자를 죽임으로써 영원히 진상규명의 기회를 잃었다고 비난이 대단했습니다. 박씨는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 석방됐습니다.

김구 — 요즘 한국사회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더군.

김삼웅 —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언론의 매카시즘 파문과 정주영씨 북한방문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김구 — 그렇다네. 아직도 한국사회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빨갱이몰이가 그치지 않더군. 지난 대통령선거도 그렇고 최근 휴전선

총격요청사건이란 것도 그렇고, 언론과 대학 교수 사이의 이념논쟁도 마찬가지야. 유럽에서는 정치이념의 지도가 바뀌고, 여기도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해묵은 용공조작 모해가 계속되다니 한심스럽구먼.

김삼웅 —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방 후 존경받는 인물로 선생님이 두번째라는 소식 들으셨는지요.

김구 — 아, 그 일본군 출신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군. 글썄, 세속적 인기따위는 안중에 없지만, 국민의 정신이 크게 걱정되는군. 다른 지도자라면 또 몰라도 하필이면 일본군 출신, 무지막지한 독재로 동포를 학대한 사람이 최상위라니, 할말이 없네 그려.

김삼웅 — 그동안 이승만 독재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역사교육 특히 근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수구회귀를 노리는 기득세력의 힘이 그만큼 막강한 까닭입니다. 선생님께서 암살을 당하시던 날 쓰신 회호의 정신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익혔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구 — 그날 나는 경교장 서재에서 서산대사의 선시(禪詩)를 쓰고 있었지. 한 번 보려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踏雪野中去)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不須胡亂行)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今日我行跡)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遂作後人程)”

김삼웅 — 부끄럽습니다. 27년 동안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한점 흐트러짐 없이 정도를 걸어 오셨는데, 해방된 조국은 선생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왜적이 수만금의 현상금을 걸고도 죽이지 못했던 분을 동족이, 그것도 독재와 분단과 친일세력이 합작한 독재권력이 죽이고, 결국에는 선생님의 길(백범노선)까지 말살하고 말았습니다.

정도(正道)나 사도(邪道)나 문제

김삼웅 — 선생님을 일부에서는 위대한 혁명가이지만 훌륭한 정치인은 못된다는 평가도 합니다. 특히 해방후 행적을 두고…….

김구 — 불초하나 나는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했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유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 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에 새삼스럽게 재화를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나, 더구나 외국 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1948. 2. 13).

김삼웅 — 부끄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박사와 타협했다라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구 — 우리는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비록 구절양장(九折羊腸)일지라도 그 길이 정도라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망명생활을 30여 년간이나 한 것도 가장 비현실적인 길인 줄 알면서도 민족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이다. 과거의 일진회도 ‘현실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945. 11. 귀국방송).

김삼웅 — 최근 정주영씨가 소떼를 끌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군사위원장 만나고 금강산 관광선이 왕래하는 등 선생님께서 1948년 4월 허순부터 5월 상순까지 평양을 다녀온 지 꼭 반세기만에 남북의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협상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많았지요. 감회가 깊으실 줄 믿습니다.

김구 — 회고컨대 나는 1948년 4월19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만남을 무릅쓰고 38선을 넘어서 북행했다. 그 뒤에 조국의 현실은 마침내 분립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국제적 제약성에 기인한 데 불과한 것이며 3천만 동포의 마음 속에는 다만 하나의 조국이 있을 뿐으로 남북동포의 통일을 갈망하는 열렬한 의욕도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1949.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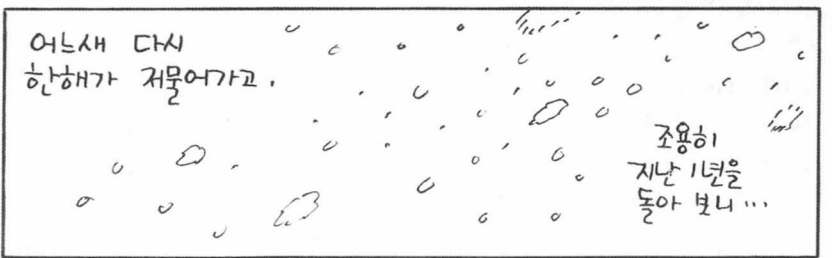
김삼웅 — 선생님께서 50년 전에 평양을 다녀와서 밝힌 성명이 마치 오늘의 상황과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이었던가요?

김구 — 천만에, 예언이 아니라 나라상황이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때문일세.

김삼웅 — 지금 나라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책과 사상

박 시백



“선생님의 통일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주적 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김삼웅씨.

어렵습니다. 그토록 배척하시던 독재정권의 가시적인 몰락 성장정책이 김영삼 정권의 무능 부패로 이어지면서 총체적인 국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의 분단'부터 극복해야

김구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나의 소원).

김삼웅 — 《고대신문》이 실시한 가장 복제하고 싶은 인물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소감을 여쭙봐도 될까요?

김구 — 고맙군. 그러나 나를 복제하는 일보다 내가 추구해온 철학을 복제하여 실천했으면 하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지만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야. 민족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네.

백범은 독립운동과 해방후 민족통일 노력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민족관계를 국가관계는 배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열린 민족주의다.

김삼웅 — 선생님의 통일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주적 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구 — 남북한이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고 경고했던 그대로 아닌가. 다행히 최근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야. 세계가 변하는데 언제까지 동족끼리 대결을 계속할 것인가. 남북동포가 마음의 장벽을 헐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거야.

김삼웅 — 선생님, 한가지 빠뜨릴 뻔했습니다. 내년 50주기를 앞두고 《대한매일》이 《백범 김구 전집(白凡金九 全集)》을 출간하기로 하고, 사계의 전문가 10명(저도 참여)을 편찬위원으로 선정해 12권으로 준비중입니다. 너무 늦은 작업이지만, 이제야 애국충정의 생애가 전집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휘호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김구 — “달이 천 번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남고(月到千經餘本質)/버드나무 가지는 백번 꺾여도 새가지가 돋는다(柳經百別又新枝)”

김삼웅 — 분단정부 수립 후 참과 거짓이 뒤섞이는 전도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쓰신 휘호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면하시면서 항상 겨레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